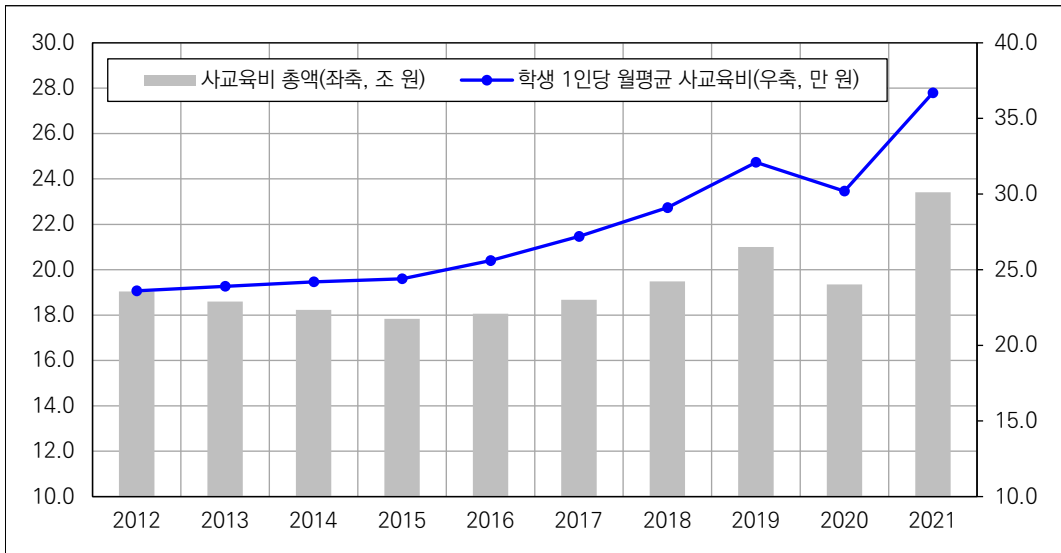


코로나19 유행 시기의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변화

-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의 변화를 살펴봄.
 - 사교육비 총액은 2019년 약 21조 원 규모를 기록하며 서서히 증가해왔음.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도 약 32만 원 수준까지 점차적으로 증가했음.
 - 2020년에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에 학교, 학원 등의 이용제한이 포함되면서 사교육비 총액이 일시적으로 감소함. 사교육비 총액이 전년대비 1.6조 원 (-7.8%) 감소,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2만 원(-5.9%) 감소했음.
 - 이에 따라 교육서비스업 취업자 수도 2020년 전년대비 약 8.6만 명(-4.6%) 감소했다가 2021년에는 다시 약 4.2만 명(2.4%) 증가함.

[그림 1] 사교육비 총액(좌축) 및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(우축) 추이

(단위: 조 원, 만 원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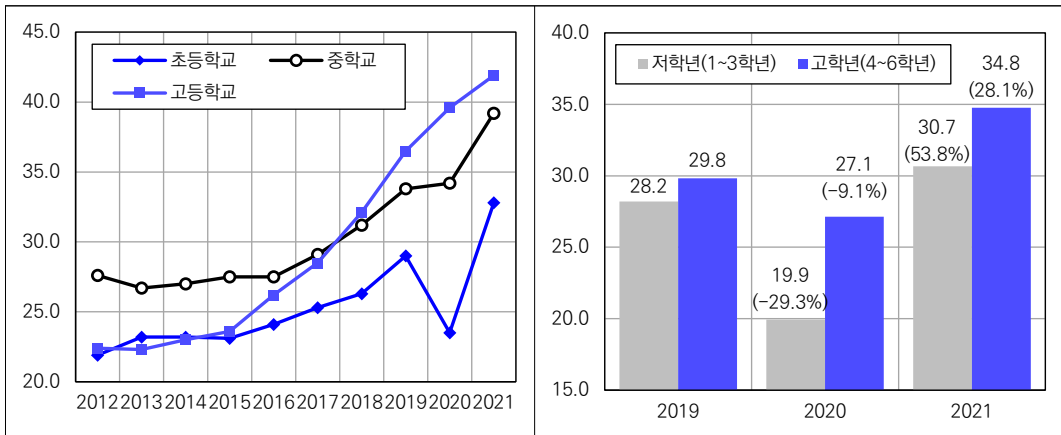
주: 1) 사교육비에는 학원비, 과외비, 학습지, 인터넷 및 통신강의 과외비(EBS 제외), 진로·진학 학습 상담비, 교재비가 포함됨.
 2)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우리나라 초중고 전체 학생(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 포함)을 대상으로 한 평균 금액임.
 자료: 통계청, 「초중고사교육비조사」, KOSIS.

○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변화를 학교급(초·중·고)별로 나누어 살펴보면, 2020년에 나타난 일시적인 사교육비 감소가 초등학교 수준에 집중된 것을 알 수 있음.

- 중학생, 고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5년 이후 2021년까지 약 10만 원 증가했고 그 추세는 2020년에도 큰 변화 없었음. 특히, 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코로나19 유행시기인 2020년에도 크게 증가함.
- 초등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역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만 원 증가했으나, 높은 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이 시행 중이었던 2020년에는 전년대비 약 6만 원 (-19.0%) 감소함.
- 초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의 일시적 감소는 저학년 학생에게 집중되었는데, 고학년 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에 비해 저학년 학생의 사교육비가 더 크게 감소했고 그에 따라 반등 정도도 더 크게 나타남.
-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사교육이 고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교과(예체능 등)에 집중되어 있으며, 일반교과에 비해 비교과 사교육비가 더 큰 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¹⁾.

[그림 2] 학교급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(좌) 및 초등학교 학년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(우) 추이

(단위 : 만 원)



주 : 1) 사교육비에는 학원비, 과외비, 학습지, 인터넷 및 통신강의 과외비(EBS 제외), 진로·진학 학습 상담비, 교재비가 포함됨.
 2)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우리나라 초·중·고 전체 학생(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 포함)을 대상으로 한 평균 금액임.
 3) 괄호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을 뜻함.

자료 : 통계청, 「초·중·고사교육비조사」, KOSIS.

1) 초등학교 저학년은 학생 1인당 일반교과 사교육비가 2019년 13.7만 원에서 11.2만 원(-18.2%), 예체능, 취미, 교양 사교육비는 같은 기간 중 14.4만 원에서 8.7만 원(-40.0%)으로 줄어들었음. 고학년은 학생 1인당 일반교과 사교육비가 20.7만 원에서 20.5만 원(-0.8%)으로 거의 줄어들지 않았고, 예체능 관련 사교육비 역시 9.1만 원에서 6.6만 원(-27.7%)으로 저학년의 예체능 관련 사교육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폭이 작았음.

○ 사교육 참여율 역시 2020년에 감소했다가 2021년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학교급별로 변화의 양상이 다소 다르게 나타남.

- 사교육 참여율 전체 평균은 2019년 74.8%까지 서서히 증가추세였다가 2020년 67.1%로 크게 감소한 후, 2021년에 다시 75.5% 수준으로 회복됨.
- 특히, 사교육 참여 감소는 초등학생에 집중되어 나타남.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80%를 넘어서는 수준이었다가 2020년에 69.7%까지 떨어짐.
- 초등학교 저학년의 사교육이 비교과에 상대적으로 집중²⁾되어 있고 일종의 공교육 이외 시간의 보육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, 코로나19 유행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한 양육자의 노동공급 변화가 해당 연령대의 사교육비 및 참여율 변화와 일정 부분 관련 있을 것으로 예상됨³⁾.

〈표 1〉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 추이

(단위 : %, 전년동기대비)

| | | 2017 | 2018 | 2019 | 2020 | 2021 |
|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참여율 | 전체 평균 | 71.2 (5.0) | 72.8 (2.2) | 74.8 (2.7) | 67.1 (-10.3) | 75.5 (12.5) |
| | 초등학교 | 82.7 (3.4) | 82.5 (-0.2) | 83.5 (1.2) | 69.7 (-16.5) | 82.0 (17.6) |
| | 중학교 | 67.4 (5.6) | 69.6 (3.3) | 71.4 (2.6) | 67.3 (-5.7) | 73.1 (8.6) |
| | 고등학교 | 55.9 (6.7) | 58.5 (4.7) | 61.0 (4.3) | 61.6 (1.0) | 64.6 (4.9) |

주 : 1) 사교육 참여율은 전체 학생 중 사교육비를 지출한 학생의 비중임.

2) 괄호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임.

자료 : 통계청, 「초중고사교육비조사」, KOSIS.

○ 가구소득별로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 변화를 살펴보면, 가구소득이 중위수준에 가까울수록 1인당 사교육비 감소폭이 더 컸고, 저소득 가구일수록 사교육 참여율이 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.

- 2020년에 나타난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

2) 사교육을 교과관련과 비교과예체능으로 나누었을 때 2021년 기준 초등학교 저학년 전체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중 예체능, 취미관련 사교육 비중이 약 47.3%, 고학년의 경우 같은 비중이 26.7%를 기록함.

3) 초중고사교육비조사를 이용하여 양육자의 노동공급 변화를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는 없지만, 2020년 부모의 경제활동상태 분포가 맞벌이는 54.6%로 전년대비 1.4%p 감소하였고 외벌이는 43.7%로 4.3%p 증가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노동공급에 다소간의 변화가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짐작해 볼 수 있음.

일 때 가장 크게 감소(-12.8%)했으며, 중위소득에 가까울수록 사교육비 감소가 크게 나타나 가구소득과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감소율의 관계가 U자 형태를 띤다.

- 반면, 사교육 참여율의 경우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. 가구소득이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가구의 평균 사교육 참여율이 2019년 60.4%에서 2020년 51.1%로 9.3%p(-15.4%) 줄어들면서 해당 가구 소득 구간 내에서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의 비중이 크게 증가함.
- 저소득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액수가 고소득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, 사교육 참여 비중도 낮음을 감안할 때, 2020년에 나타난 사교육 감소는 소득계층간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방향이었음을 알 수 있음.

[표 2] 월평균 가구 소득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 수준 추이

(단위 : 만 원, %, 전년대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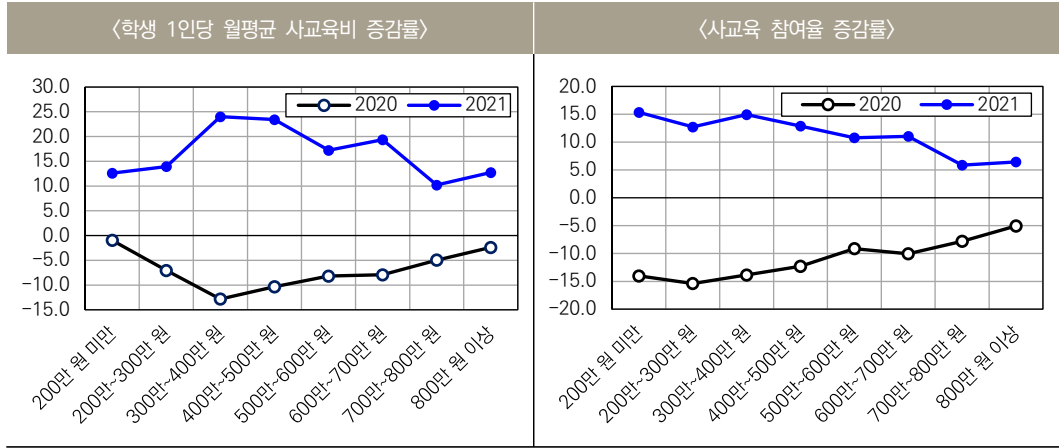
| |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| | | 사교육 참여율 | |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| 2019 | 2020 | 2021 | 2019 | 2020 | 2021 |
| 200만 원 미만 | 10.4 (5.1) | 10.3 (-1.0) | 11.6 (12.6) | 47.0 (-0.6) | 40.4 (-14.0) | 46.6 (15.3) |
| 200만~300만 원 미만 | 17.0 (9.0) | 15.8 (-7.1) | 18.0 (13.9) | 60.4 (1.7) | 51.1 (-15.4) | 57.6 (12.7) |
| 300만~400만 원 미만 | 23.4 (5.4) | 20.4 (-12.8) | 25.3 (24.0) | 70.7 (0.0) | 60.9 (-13.9) | 70.0 (14.9) |
| 400만~500만 원 미만 | 30.0 (7.5) | 26.9 (-10.3) | 33.2 (23.4) | 78.0 (3.2) | 68.4 (-12.3) | 77.2 (12.9) |
| 500만~600만 원 미만 | 35.4 (7.6) | 32.5 (-8.2) | 38.1 (17.2) | 79.8 (0.9) | 72.5 (-9.1) | 80.3 (10.8) |
| 600만~700만 원 미만 | 40.4 (8.3) | 37.2 (-7.9) | 44.4 (19.4) | 83.6 (3.1) | 75.2 (-10.0) | 83.5 (11.0) |
| 700만~800만 원 미만 | 46.4 (10.0) | 44.1 (-5.0) | 48.6 (10.2) | 87.0 (3.9) | 80.2 (-7.8) | 84.9 (5.9) |
| 800만 원 이상 | 53.9 (6.7) | 52.6 (-2.4) | 59.3 (12.7) | 85.1 (1.3) | 80.8 (-5.1) | 86.0 (6.4) |

주 : 1) 사교육비에는 학원비, 과외비, 학습지, 인터넷 및 통신강의 과외비(EBS 제외), 진로·진학 학습 상담비, 교재비가 포함됨.
 2)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우리나라 초·중·고 전체 학생(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 포함)을 대상으로 한 평균 금액임.
 3) 괄호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을 뜻함.

자료 : 통계청, 「초·중·고사교육비조사」, KOSIS.

[그림 3] 월평균 가구 소득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 증감률 추이

(단위 : %, 전년대비)



주: 1) 사교육비에는 학원비, 과외비, 학습지, 인터넷 및 통신강의 과외비(EBS 제외), 진로·진학 학습 상담비, 교재비가 포함됨.
 2)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우리나라 초중고 전체 학생(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 포함)을 대상으로 한 평균 금액임.
 자료: 통계청, 「초중고사교육비조사」, KOSIS.

○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공교육과 사교육의 운영 형태에 큰 변화가 나타나면서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에도 변화가 관찰됨. 사교육은 개인의 인적자본 축적의 의미에서부터 공교육과의 관계, 세대 간 인적자본의 이동성과 격차의 문제, 양육자의 노동공급, 교육 관련 서비스업의 고용에 이르기까지 개인적, 사회적으로 다양한 파급력을 지니는 만큼 그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. **KLI**

(김종욱,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)